

01 교회소식

하나님 사랑과 권능을 전하는 신문

32개 언어로 발간돼 전 세계 영혼들에게 참 생명과 믿음을 심어 주고 있는 '만민뉴스'가 창간 27주년을 맞았다.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리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03 기획특집

하나님의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

04 간증

죽음 앞에서 얻은 영생의 축복 ~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권능의 기도로 비인두암 4기와 전이된 암까지 깨끗하게 치료받고 새생명을 얻은 이민수 성도 간증.

# 만민뉴스

제633호 2014년 5월 11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를 땅 끝까지 전해요” 32개 언어로 발간되는 '만민뉴스' 창간 27주년 맞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행복한 소식이 가득한 신문, 32개 언어로 발간돼 전 세계 독자들에게 참 믿음과 생명을 전해 주는 선교지, '만민뉴스'가 창간 27주년을 맞는다.

1987년 5월 17일 '만민중앙소식'으로 창간한 만민뉴스는 다양한 읽을거리로 하나님 사랑을 듬뿍 체험할 수 있어 국내외 독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과 국내외 선교 소식, 각종 행사와 영적 성장을 돕는 신앙 관련 기획특집 기사, 하나님 권능을 체험한 생생한 간증 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만민뉴스가 전도에 아주 유용할 뿐 아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신앙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기도제물연합회 회장 오세영 권사는 “만민뉴스 안에 요약된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해 갔더니 삶 가운데서 늘 말씀이 제 친구처럼 다가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라고 했다.

2청년선교회 김명준 형제는 “기도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군대에서도 만민뉴스가 큰 힘이 됐습니다. 당회장님의 영적인 설교를 매주 공급받을 수 있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영적 흐름을 타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라고 했다.

현재 만민뉴스는 한국어를 포함해 32개 언어로 발간되고 있다. 매주 발간되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간체, 번체)판 외에 월 2회 발간되는 러시아어, 스페인어, 파갈로그어판이 있다.


또한 월 1회 발간되는 일어, 불어, 힌디어, 타밀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덴마크어, 핀란드어, 에스토니아어, 불가리아어, 우크라이나어, 히브리어, 우르두어, 태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비샤이어, 미얀마어, 스웨덴어, 아랍어판이 있으며 분기별로 발간되는 네팔어판, 연 2회 발간되는 독일어, 이태리어판 등이 있다.

인쇄용 PDF 파일도 제공하고 있는데, 인터넷 [www.manminnews.com](http://www.manminnews.com)에 접속해 상단 메뉴바에서 해당언어를 클릭한 뒤, 오른쪽 하단에 Printed PDF Download를 클릭, '운영자에게 메일보내기'로 요청하면 된다.



전 세계 만민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죄악으로 가득한 마지막 때에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를 전하는 '만민뉴스' 한글판은 매주 발간되며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불어, 스페인어 등 30여 개 언어로 번역, 제작돼 국내외 어디서나 인터넷([www.manminnews.com](http://www.manminnews.com))으로 볼 수 있다.

### “만민뉴스 읽는 재미에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주성교 성도 (65세, 왼쪽)**

저희 부부는 강원도 정선 산간에서 10년 넘게 '만민뉴스'를 읽으며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만민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이 정기구독을 신청해 준 덕분이지요. 농사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만민뉴스가 와 있으면 아주 행복합니다.

이번 주는 또 어떤 소식이 실려 있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읽어내려 갑니다. 깊고 오묘한 당회장님의 설교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생명의 말씀이며, 신앙 간증도 아주 은혜스럽지요.

특히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다가 당회장님 기도로 치료받은 간증들을 볼 때 제가 치료받은 것처럼 얼마나 기쁘지요. 만민뉴스가 있으니 집사람과 은혜받은 내용을 대화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신앙 서적, GCN 방송([www.gcntv.org](http://www.gcntv.org))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당회장님의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일곱 번 넘게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믿음이 생기는 체험을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된 우리교회



지난 5월 4일 우리 교회에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감사로 어린이주일 예배를 드렸다. 이 목사는 '순전한 어린이'(삼상 2:2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강사를 맞이하는 아동교직원과 아동주일학교 어린이들).



권사회에서는 70세 이상 남·여선교회 회원들을 초대해 '어버이주일 행사'를 열었다. 이수진 목사의 설교 후, 새렘국악선교단, 진주중창단 등의 공연이 이어졌다(공연을 보며 행복해하는 성도들과 예술선교단의 부채춤 공연).



저녁예배는 '청년·가나안·빛소금·학생 헌신예배'로 드렸다. 감사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우리의 총만은'(고후 6:2)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말씀을 경청하는 헌신자들과 전체 특송).



《 기획특집\_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

하나님의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편 37:6)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말하라고 하면 '사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랑이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얼마나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물론 나름대로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없다면 진정 사랑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며 사랑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사랑과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주고 계실까요?

1.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사랑과 공의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공의란 선악 간에 공평하게 상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또는 속성을 일컫습니다. 이때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공의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만 알고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만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참사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주인으로서 유일한 심판주가 되십니다. 이러한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영계의 법칙을 준행하시는 분입니다.

영계의 법칙 중에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라, 지키라, 버리라, 하지 말라'는 말씀들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역사하시며 이것이 사람들에게 '공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의의 기본 원칙은 간단히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마음에 품은 생각, 말과 행동 하나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어떠한 것이든 악한 것으로 심으면 악으로

거두고, 선한 것으로 심으면 선으로 거두게 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죄의 삯은 사망'(롬 6:23)이라는 말씀은 곧 죄를 심으면 사망으로 거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해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 사망이라는 판결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비진리에 속한 생각이나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하지요. 사람의 말과 행동은 물론, 모든 생각과 마음에 품는 것까지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 오직 진리의 말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며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에서든 아니면 심판 날에 가서든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공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혹여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 무섭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이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보다는 공의에 따른 징계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섭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예컨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경찰을 만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니 오히려 든든하게 느끼지요. 그런데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혹시 어딘가에 경찰이 있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상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되(전 12:14)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히 11:6). 악을 행한 사람은 악을 행한 만큼 반드시 그에 대한 보응이 주어지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선을 행한 만큼 반드시 선과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공의가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팀(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내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수한 복음의 진수를 전하며 불같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전 세계 만민을 깨우고 있는 사랑과 권능의 목회자.

1982년 장년 9명과 어린이 4명이 모여 시작된 만민중앙교회를 성령의 역사 속에 전 세계 1만여 지·협회 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초대 형교회로 성장시켰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후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입증하신 것처럼 이재록 목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권능을 통해 성경이 참된 진리임을 확증하고 있다.

2000년부터 우간다, 일본, 파키스탄, 케냐, 필리핀, 온두라스, 인도, 러시아, 독일, 페루, 콩고민주공화국, 미국, 에스토니아 등에서 대규모 연합집회 부흥사로 활발하게 사역해 왔으며 집회 시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 CNN에 보도된 바 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2009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는 220여 개국에 중계됐고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지금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 때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뤄 드리고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있다.

[www.drlee.or.kr](http://www.drlee.or.kr)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며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의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고 진리를 좇고자 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며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 주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느낍니다.

즉 공의 가운데 받는 징계나 연단도 결국은 나를 온전케 만들려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임을 깨달아 어둠에서 떠나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며 이것이 곧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죄에서 돌아키지 않으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 징계를 통해서라도 깨닫고 돌아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 이끄시는 것이지요.

**3.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통해 온전한 모습으로 나온 다윗**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버리지 못한 죄성이 있어 밋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고 이 일을 무마시키기 위해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듭니다.

이 일로 인해 다윗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징계와 함께 혹독한 연단을 받습니다. 밋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죽었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인 다윗까지 죽이려 한 것이지요.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성을 버리고 도망가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남아 있는 죄성까지라도 완전히 뽑아낼 수 있도록 징계와 연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합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크신 축복을 넘치게 부어 주셨습니다.

반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은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노새를 타고 도망하다가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공중에 매달린 채 요압 장군의 창에 찔려 죽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되 결국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를 위한 것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는 진리 안에 살고자 하며 설령 예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다 해도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는 양약이 되고 축복으로 임합니다. 반대로 죄 가운데 거하고 돌아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엄한 심판의 판결이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까닭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선악의 결과에 아무런 차이도 없을 것이니 누가 선을 행하고자 하겠으며 선을 행한다 해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전도서 12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과 진리대로 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4. 공의를 정오의 빛에 비유하신 이유**

정오의 빛은 하루 중에 가장 밝히 비추는 빛입니다. 깊은 산 속에 있다 해도,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있다 해도 중천에 떠 있는 태양에서 발하는 정오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정오의 빛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며 매우 밝게 빛나므로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으며 모든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시편 37편 6절에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보장받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정오의 빛같이 밝히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악에서 떠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악을 행한다면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를 어긴 것이 됩니다. 선악 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볼 때 악을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명백히 공의의 법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모세를 택하시고 40년간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 넘는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해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닦은 지도자가 필요했지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40년 광야생활 동안에 수많은 불순종과 원망, 불평을 하며 때로는 대적해 오기도 하는 백성을 오래 참으며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마음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자신을 닦은 모세를 보실 때 마음이 매우 흐뭇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치 않으셨습니다. 백성 중에 고라라는 인물을 비롯해 한 무리가 반역을 일으키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이 그 입을 열어 삼키는 무서운 재앙으로 멸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 진노하신 것은 결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함으로 공의를 굽게 하려고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기 위함이지요. 또한 이를 통해 백성에게 교훈을 삼게 하시고 다시금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더욱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며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의란  
선악 간에 공평하게  
상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또는 속성을 일컫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공의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만 알고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만 인식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참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5**  
MAY  
2014.5.11~5.17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7-11
- 2차 영혼육 15/3차 영혼육 1-4
- 인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2-4
- 믿음을 척량하시니 1-2
- 일곱교회 12-16
- 요한일서 강해 14-18
- 축복 3 • 우리 삶의 등불 10-12

**GCN TV설교**

-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2-3 (이수진 목사)
- 선을 달아나는 방법 (이미영 목사)
- 영의세계 16 (이희선 목사)
- 복있는 사람 5/ 생령수 8-9 (신동초 목사)
- MIS강의 8/ 탕자의 비유 1 (정구영 목사)
- 온전한 신뢰 (김지애 전도사)
- 하나 (조소영 교육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즐거운 요리 6
- 옛날 옛적에 3
- 만민 지킴이 3
- 모두 드려요 6
- 흥겨운 소리 3
- 아름다운 예배 2-3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25
- 찬양 드려요 25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21
- 황기 25 • English 12-13
- 뷰티풀라이프 2
- 플로리스트 4-5

**해외선교회 프로그램**

- 인도연합대성회 2
- 회상 3, 4, 7

GCN 방송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577-2073**

“내가 죽는다!” 청천벽력 같은 사형선고를 받고

언제부터인가 어깨 통증이 느껴지더니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진통제를 복용해도 잠시뿐 송곳으로 찌르는 듯했지요. 한의원에서 침도 맞아보고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도 받아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한 가끔 두통과 함께 코가 답답하고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지요.

2012년 10월,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 베개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습니

다. 피곤해서 코피가 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2월, 두 번째 코피가 나자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CT 촬영 결과 의사 선생님은 코에 큰 종양이 있다며 대학병원으로 가볼 것을 권했습니다. 대학병원 검사 결과 비인두암 4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생사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교수님에게 살 소망이 있는지 묻자 환자가 원하는 것이나 잘 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사형선고라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 앞에 저는 그저 눈물만 나왔습니다.

2013년 3월 19일,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 PET-CT 검사(모든 암의 존재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진단기로 암의 전이나 재발을 확인하는 데 정확성이 높은 검사),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역시 비인두암 4기였고, 코 속의 종양 크기가 5.5cm나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암이 임파선과 뼈(경추, 어깨뼈, 척추, 꼬리뼈)까지 전이됐으며, 종양이 코 속 기도 부위에 있어 수술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들으며 지난날을 통회자복하니

지난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후회가 막급했습니다. 1982년 12월, 저는 막내 누님인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의 전도로 만민중앙교회에 6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매형 되시는 당시 이재록 전도사님의 기도로 갖가지 질병이 치료되고, 연탄가스로 죽어가던 조카들과 청년이 살아나는 등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목도했지요.

하지만 저는 세상이 더 좋았습니다. 당시 경찰직에 근무하면서 음주를 즐겨했고 젊었을 때 세상 것을 더 누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가족의 권면도 무시한 채 주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었지요.

2013년 4월, 셋째 누님인 이정님 권사님이 저를 위한 기도회가 이복님 원장님을 모시고 있으니 꼭 참석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원장님은 “교회에 나가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병을 고쳐 주실 거야.”라고 희망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후로 저는 목포만민성결교회에 출석하며 화상을 통해 만민중앙교회 주일 대예배를 드리면서 당회장님의 설교를 경청했습니다. 하염없이 후회와 회개의 눈물이 흘렀지요. 더욱이 평소 좋아했던 당회장님이신지라 너무 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교회에 나가지도 않았고 암 진단을 받고 나니 찾아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원장님이 건네주신 당회장님의 ‘십자가의 도’ 설교 테이프 24개를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할 줄 몰랐지만 10대, 20대 시절에 술과 싸움으로 지낸 일들을 비롯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시간들을 눈물로 회개하며 통회자복했습니다.

권능의 기도로 비인두암은 물론, 전이된 암까지 사라져

셋째 누님(이정님 권사)이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으라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민망했지만 내심 반가웠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해 당회장님께 처음으로 기도를 받았습니다.

2013년 5월 29일, 당회장님 손이 제 머리에 닿자 뜨거운 열기가 머리에서부터 척추로 퍼졌습니다. 동시에 어깨와 척추에 전이된 암의 통증이 신기하게도 사라졌지요. 그동안 통증으로 인해 새우잠을 잤던 것과는 달리 반듯하게 누워서 잘 수 있었고 완치될 수 있다는 믿음이 왔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코 속에 있는 종양 크기는 3cm나 줄었고, 몸무게도 85kg에서 71kg까지 빠졌었는데 식욕이 돋으니 체중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6월 24일부터 만민기도원 은사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원장님이 설교하실 때 원장님 뒤편에 걸린 은사집회 플래카드에서 예수님 형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곳에 원래 그 형상이 새겨져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저희 부부에게만 보인다든 사실을 알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지요. 그 후 매 집회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좋아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통회자복했습니다.

6월 28일에는 당회장님께 두 번째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때도 당회장님 손이 제 머리에 닿자 뜨거운 성령의 기운이 머리부터 임했지요. 평안하고 기뻐했습니다. 얼마 후 목포에 내려온 저는 당회장님 설교를 듣거나 예배를 드릴 때 감사가 넘쳤고, 시간마다 회개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8월 어느 날, 재채기를 크게 했는데 코 속에서 종양 덩어리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고기 썩은 냄새가 났지요. 그 뒤 병원 검사 결과는 놀랍게도 종양이 또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이된 암으로 인해 뼈 부위가 대부분 검은 색이었는데 흰색으로 회복돼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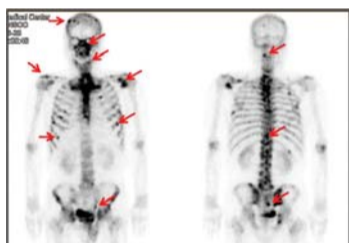
11월 15일, 당회장님께 세 번째 기도를 받았습니다. 27일 병원 검사 결과, 코 속의 종양이 없어지고 뿌리만 조금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뒤 식욕도 왕성해지고 체중도 정상이 되면서 건강이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마침내 2014년 3월 7일 검사 결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 속 종양과 임파선에 있던 전이된 암이 뿌리째 사라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추 1, 2번 뼈에 약간의 흔적을 제외하고는 뼈에 전이된 암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사형선고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제2의 인생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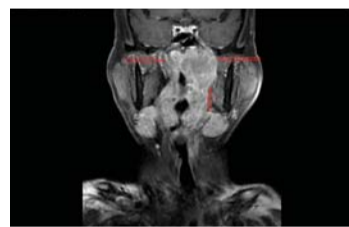
“비인두암 4기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살려 주셨습니다” 이민수 성도 (목포만민성결교회, 63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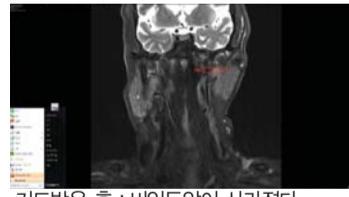
기도받기 전 : 비인두암이 두개골, 어깨뼈, 늑골, 등뼈, 허리뼈, 꼬리뼈까지 전이된 소견을 보인다.



기도받은 후 : 두개골과 뼈들에 전이된 암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기도받기 전 : 5.5cm 크기의 비인두암이 경동맥을 감싸고 있으며 중앙선을 넘어 우측으로 밀고 있다.



기도받은 후 : 비인두암이 사라졌다.

국내 지교회, 지정성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안성만민교회 안성시 안성1로 103, 복성 B/D 7층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새광주만민교회 새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동광주만민교회 동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울질로355번길 12-1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산전길 9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천안만민성결교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135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길 24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서광주만민교회 충청남도 서산시 금암로 135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구룡산로326번길 32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울봉로176번길 62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 말양만민교회 경남 말양시 시청서길 36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진주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5 3층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합빌딩 301호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637, 2층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변영로 238, 2층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성시 성룡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결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